

# 대구·경북지역 양돈인 대구시청서 시위

## - 돼지 부산물 공개 경매해 줄 것 요구 -



대구·경북지역 양돈인 200여명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대구시청앞 광장에서 돼지 부산물 판매제도를 현행 수의계약제도에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하며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대한양돈협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조옥봉), 청도지부(지부장: 최재호), 영주·영풍지부(지부장: 남창수), 영천지부(지부장: 이광우), 달성지부(지부장: 신중환) 등이 중심이 된 이날 시위에서 양돈인들은 「대구시가 돼지 부산물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양돈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양돈인들은 「돼지 부산물이 특정업자와

수의계약 됨으로 인해 양돈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례로, 시장도매가격이 3,000원인 돼지머리가 480원에, 2,500원인 돼지내장(1마리분)이 340원, 1,600원인 돼지족(1마리분)이 500원에 수의계약돼 전국 양돈인이 연간 360억원이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돈인들은 「축산물 도매시장 감독·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부와 대구시 등에 80년 이후 8차례나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묵살당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오늘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오후 2시 대구시청에서 200m 떨어진 명성예식장앞에 집결한 양돈인들은 「생존권 사수」가 적힌 머리띠와 「돼지부산물 판매제도 개선하

라」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돼지부산물 판매제도 즉각 개선하라」 「농민 착취행위 즉시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 50여개, 「돼지부산물 판매제도 개선하라」가 적힌 대형 프랑카드 5-6 개를 들고 대구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구시청앞 광장에서 양돈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평일 근무시간인데도 대구시청 옥상에 국기가 게양돼 있지 않아 취소) ▷애국가 제창 ▷결의문 채택 ▷구호제창 등의 간단한 행사를 갖고 경남북 지부장 13명으로 협상대표를 선발, 임경호 부시장과 이희태 지역경제국장과 협상케 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림수산부장관, 대구시장은 즉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의계약제를 철폐하고 완전자유 경매제를 실시하라 ▷축산물 도매시장을 현재의 배로 증가시켜 유통의 원활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한다 등 3개항을 결의했다.

이어 대구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협상에서 양돈인 대표들은 「우리 양돈인들은 어떠한 특혜나 잇권을 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돼지 부산물을 공정한 경매제도를 통해 정당한 값에 판매해 달라는 것 뿐」이라며, 돼지부산물 판매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경호 부시장은 「신흥산업(주)에서 부산물의 30%를 가져가는 실명용사회에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전제, 「우리도 현재의 수의계약제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양돈인 대표들은 이에 대해 「실명용사회는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지, 못사는 농민의 것을 수의계약이란 형식을 통해 실명용사



회에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개경쟁입찰제도 시행일을 못박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돼지 부산물 판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임경호 부시장과 이희태 지역경제국장이 「돼지부산물 판매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시행세칙 및 규정을 마련하는 즉시(88년 7월중)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서에서 서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5시 반경 협상대표들이 밖으로 나와 대구시에서 서명한 문서를 읽어 주자 박수로 이를 받아들이고, 부근의 프랑카드·머리띠·휴지 등을 깨끗이 치운후 질서정연하게 해산했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부는 5월 12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각 시도지사는 7월 31일까지 축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돼지 부산물의 판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제로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에 소재한 신흥산업(주)은 현재 돼지부산물의 30%를 실명용사회에, 30%는 대구·경북양돈조합에, 나머지 40%는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여타 시·도에서도 돼지 부산물의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나, 양돈인들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출하물량이 많은 서울의 우성농역(주)와 협진식품(주)에서도 하루빨리 돈부산물 판매제도를 공개 경매제도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김동성〉